

삼서면 외딴집 ‘설경 핫플레이스’… 방문객 발길 ↑



장성군 삼서면(보생리 616-2) 외딴집이 사진작가들로부터 ‘설경’ 시그니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 흰구름과 푸른하늘, 설경이 어우러진 풍광이 마치 그림엽서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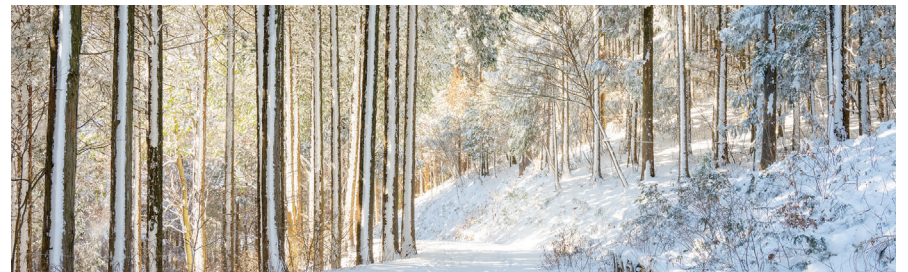
조경원 사진작가 제공



백양사 쌍계루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설경(임재울 사진작가)

장성군에 사진작가들만 아는 명소가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옥정호, 화순 세랑지와 같은 겨울철 지역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올 한해를 보내며 일출의 장관과 겨울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한다.

●삼서면 외딴집, 설경 풍광 ‘탄성’

일출은 감상할 수 없지만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명소로는 삼서면 외딴집(보생리 616-2)을 꼽을 수 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언덕 위에 조용히 자리한 낡은 집 한 채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전한다. 설경을 최고로 치지만, 사계절 별빛을 감상하기 위해 가족단위 방문이 이어지는 등 ‘숨겨진 명소’라기에 부족함

이 없다.

조경원 사진작가는 “사진촬영의 포인트는 흰구름과 파란하늘, 설경이 어우러졌을 때가 사진찍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며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는 근처 조금만 나오면 찻집이 있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장성호 출렁길 근처 찬란한 햇살 감상

일출감상을 위한 장소로 장성호(장성읍 용강리 171-1)를 꼽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좌측 황금대나무숲길이나 계단을 이용해 댐 위에 오르면 드넓은 장성호가 눈앞에 펼쳐진다. 호수 좌측 ‘출렁길’을 따라 10분만 걸어도 우측 하늘에서 찬란히 밝아오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장성

흰구름+ 푸른하늘+ 설경 압권
사진작가들 입소문에 찾는이 ↑
장성호·황룡강, 일출명소 기대
축령산·백양사 겨울풍경 감탄

군이 매년 새해맞이를 장성호에서 갖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새해 해돋이 시간은 오전 7시 30분 내외로 예상된다.

●황룡강 상류 해맞이 일품

온 가족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는 황룡강이 꼽힌다. 상류지점인 황미르주차장(장성을 기산리 1)에 주차한 뒤 제방산 너머로 밝아오는 해를 함께 맞이하면 된다. 해돋이 감상 후에는 황룡강변을 가볍게 걷거나 읍시가지에서 아침 식사를 해도 좋다.

●축령산 하늘숲길·백양사 ‘겨울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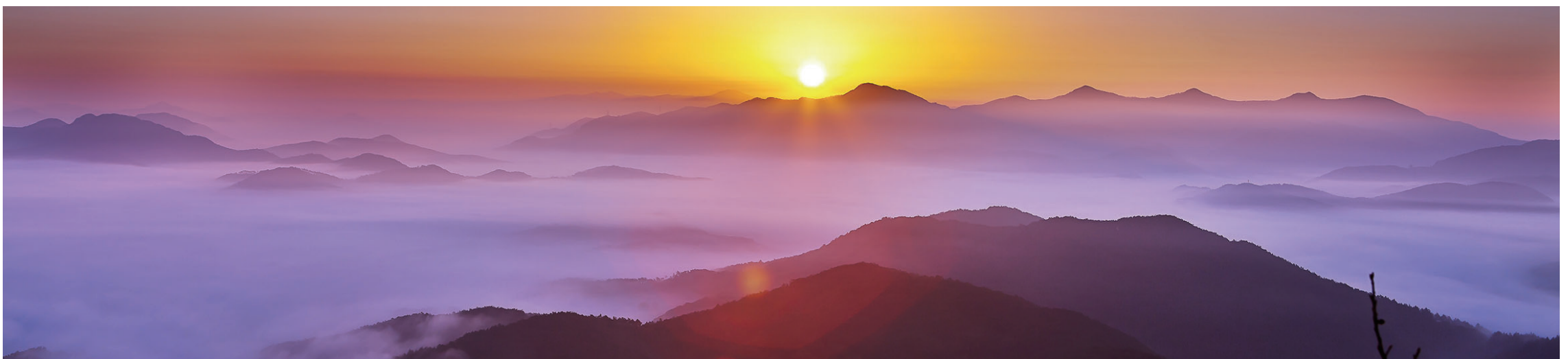
제대로 된 겨울 경치를 감상하고 싶다면 축령산을 추천한다. 1년 내내 푸른 편백숲에 눈이 내리면 북유령을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최근 조성된

하늘숲길(서삼면 추암리 669)은 꼭 가볼 것을 추천한다. 숲 위 설치된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바라보는 웅장한 경관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단, 하늘숲길 진입로가 다소 경사가 있어 결빙 등 여건을 미리 확인한 후 출발하기를 권한다.

천년고찰 백양사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여행지다. 쌍계루와 백암산 백학봉 등 명소가 가득한 데다 한적한 사찰 풍경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사계절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주말이나 명절에는 다소 차가 막힐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물 같은 겨울 여행지로 가득한 장성군에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백암산에서 바라본 일출